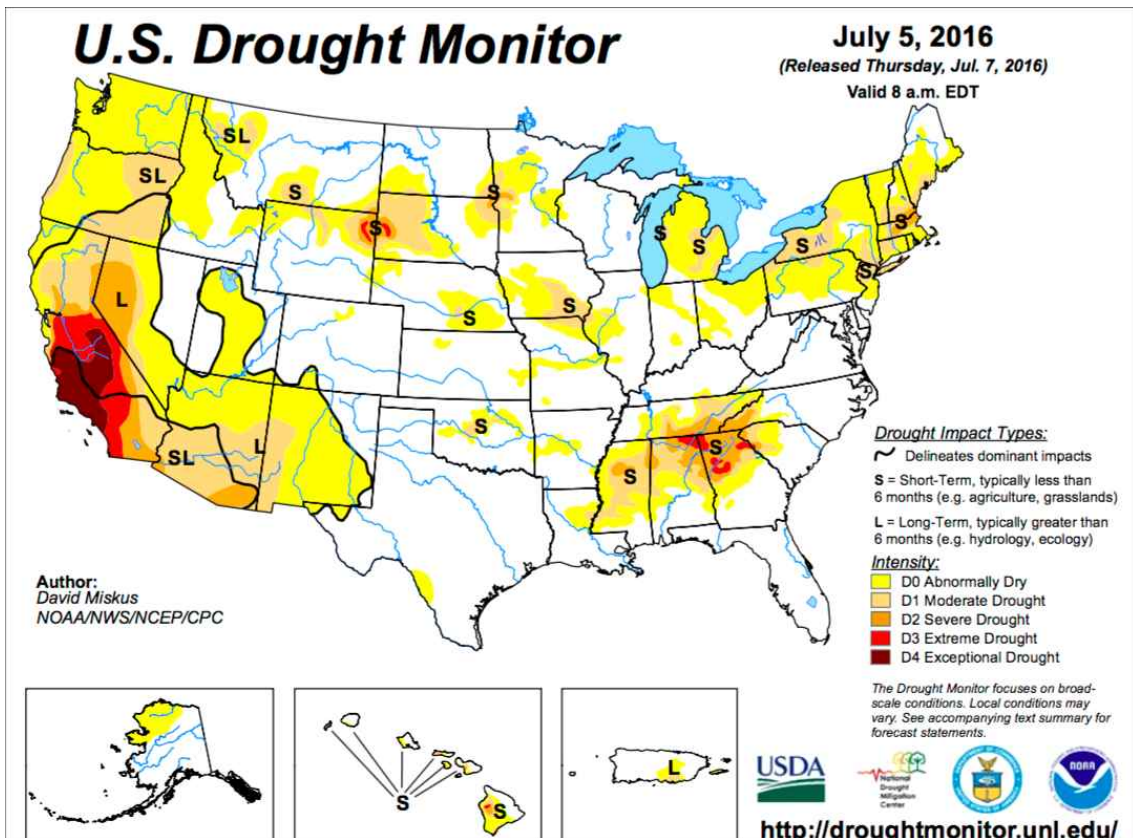


7월 12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28)

□ 미국 기후 현황(7/3~7/9)

남부와 서부 옥수수 재배지 일대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렸다. 중서부에서는 이번 비와 함께 평년에 비해 서늘한 날씨를 보였다. 미시간 등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북동부에서는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가 내렸다. 남부의 오하이오 일대에서는 4~10인치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일부 저지대에서는 침수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평원과 남부 일대에서도 지난 4일부터 며칠 간 비가 내렸다. 남부 고원 일대에서는 지난 한 주간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5~10°F 이상 높았고, 남부의 많은 지역에서도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5°F 이상 높았다. 북서부에서는 주 후반에 비가 조금 내리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고, 서부 전역에서도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남서부에서는 계절적인 경향으로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로키산맥 남부와 중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조금 내렸다.



□ 농업 현황 요약(7/4~7/10)

대서양 연안, 남부 등에서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보인 가운데, 뉴 멕시코, 텍사스 서부 등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10°F 이상 높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태평양 연안 북서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4°F 이상 낮았다. 오하이오 인근에서는 많은 비가 내렸다. 켄터키 서부에서도 10인치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이 침수되기도 했다. 북부 일대에서는 곳에 따라 비가 조금씩 내렸다.

■ 옥수수

Silking 단계가 끝난 지역은 32%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9%p 앞선 상황이고, 5개년 평균에 비해서도 6%p 앞선 것이다. 주요 옥수수 재배지인 일리노이, 아이오와, 미주리, 테네시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silking 단계에 이른 재배지 면적이 지난 한 주간 20%p 이상 증가했다. 응답자의 76%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주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는 7%p 높은 수치이다.

■ 대두

지난 7월 10일 기준, 전국적으로 40%에 해당하는 지역이 개화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p 앞서고, 5개년 평균에 비해서도 9%p 앞선 수치이다. 18개 주 가운데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등을 제외한 12개의 주에서 지난 한 주간 개화기에 도달한 재배지 면적이 10%p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주에 비해 약간 상승한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9%p 높은 수치이다.

■ 겨울밀

7월 2일 기준 수확률은 64%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4%p 앞선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이다. 콜로라도, 몬테나, 미시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확작업 진행률은 직전 5년 평균에 비해 앞서고 있다.

■ 면화

7월 10일 기준 57%가 squaring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5%p 뒤쳐진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면화송이가 형성된 비율은 19%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54%의 응답자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2%p 낮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도 3%p 낮은 수준이다.

■ 쌀

7월 10일 기준 전체 재배지의 28%가 heading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7%p 앞선 수치이다.



루이지애나의 일부 재배지에서는 수확을 위해 농지를 건조시키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68%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보다 약간 낮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도 3%p 낮은 수준이다.

□ 세계 기후 현황(7/3~7/9)

■ 유럽: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북부와 동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프랑스, 독일 및 영국 남동부에서는 지난 5월과 6월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겨울밀과 유채의 생육상황은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최근의 잦은 비와 흐린 날이 이어지는 날씨 때문에 수확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 폴란드 및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10~6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영국 북부에서도 10~70mm 내외의 비가 내렸는데, 이로 인해 농작업이 다소 지연되었다. 프랑스와 다뉴브 강 일대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1~4°C 정도 높았다. 스페인에서는 3~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남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40~45°C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를 보였다.

■ 구소련(서부): 주요 겨울밀 재배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중남부와 러시아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와 함께 기온도 1~3°C 정도 없었고, 이 덕분에 겨울밀 생육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 동부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려 겨울밀 수확작업이 다소 지연되었지만, 이번 비가 품질이나 생산량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우크라이나 북서부와 벨라루스 등 인근지역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일시적으로 기습을 부렸던 가뭄을 해소해주었다. 주요 옥수수 재배지 일대에서는 지난 60일간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옥수수 생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동아시아: 중국 북동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Heilongjiang 동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을 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낮 최고기온은 35°C까지 올랐다. 북부 평원의 남부 및 서부 일대에서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양쯔강 일대에서도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타이완 남부에서는 태풍 Nepatak이 접근하면서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했고, 100 Knot 내외의 강풍이 불기도 했다. 이번 태풍으로 타이완 전역에는 50~2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중국 남동부 해안에도 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호주: 주요 밀 재배지 일대에 비가 내렸지만 겨울밀 생육상황은 아주 좋은 편이다. 강수량은 10~25mm 내외였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50mm 이상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빅토리아 북서부에서는 5~10mm 내외의 적은 비가 내렸지만, 토양 수분 함량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곡창지역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중부에서는 지난 주 내렸던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Buenos Aires 남부에서부터 Santiago del Estero, Salta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비가 조금 내렸지만 강수량은 10mm 내외에 그쳤다. 북동부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우루과이와 국경을 접한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되었다. 중부와 북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2°C 정도 높았고, 남서부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도 했다. Buenos Aires남부에서는 낮 동안 기온이 10~20°C 사이를 유지했고, Formosa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초반까지 올랐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7월 7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54%였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71%에 비해 느린 편이다.

■ 브라질: 대체적으로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중부와 서부 및 북동부 내륙의 Mato Grosso, Mato Grosso do Sul 동부 및 Tocantins, Bahia 서부 등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북부의 Mato Grosso 북부 및 동부 등에서는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낮 최고기온은 30°C 초반까지 오르내렸다. Parana 북부에서도 맑은 날씨를 보였다. 남부의 겨울밀 재배지역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